

현대패션에 나타난 시간성 - Retro Fashion 현상을 중심으로 -

조소영 · 양숙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¹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패션은 언제나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한다. 최근 패션은 이미 폐기되고 지나간 과거의 이미지들을 불러내어 ‘새로움’에 대한 또 다른 영역을 만들어 내고 있다. 새로운 유행, 다가올 트렌드를 제시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속에 과거의 이미지들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들의 패션 디자인을 설명하는 키워드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레트로 패션이다.

‘레트로’는 이제 정착되고 평범한 용어로서 포스트모던 패션의 모습을 특징 짓는 것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과거시간들은 20세기말 노스탤지어, 역사주의, 빈티지, 올드패션의 재활용 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21세기에 들어서며 매 시즌 트렌드에 기억, 회상, 레트로 등이 패션키워드로 제안되고 있다. 20세기말 직선적 진보를 추구하던 모더니즘에 지친 사람들은 과거를 향수하기 시작했고, 이는 패션을 포함하여 문화전반의 주된 정서가 되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래, 진보, 발전을 중요시한 근대이성으로부터 타자화되었던 과거, 전설, 신화, 기억 등이 탈근대 담론으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현대문화의 흐름 속에서 역사, 과거의 시간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레트로 패션 현상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연구의 일부로 복고주의가 다루어져 왔으나, 레트로 패션현상이 일어나게 된 문화·철학적인 사유와 관련한 현대패션의 근원적인 시간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리가 지금-시간(now-time)에 향유하고 있는 근원적인 시간성을 고찰하고 현대패션과 시간성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패션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시간성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텍스트이며, 레트로 패션이 필연적 현상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에 따라서 현대패션이 서공간의 진정한 열린 텍스트로서 지니는 미학적 가치를 밝히고,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미래 패션이 나아가길 길을 탐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내용으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현대철학자들의 시간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고, 현대예술의 시간성에

†교신저자 E-mail : YS3414@sookmyung.ac.kr

관하여 연구하였다. 시간의 세 가지 양상인 과거, 현재, 미래는 어느 하나를 독립적으로 다룰 수 없으나 앞서 밝힌바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의 레트로 패션 현상의 근원적인 시간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시간에 대한 이론연구는 과거에 주목한 시간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간은 자연시간과 공간-시간 등 천체의 운행에 그 기초를 둔 객관적 시간과 의식시간, 역사적 시간, 삶의 시간 등 주로 삶의 내용과 관련되는 시간으로서 주관적 시간 또는 체험·감성적 시간으로 구분한다. 시간에 대한 사유는 철학자들에 따라 개별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과거가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시간관인 선형적 질서를 해체하고, 출생과 죽음, 출발과 회귀는 존재들이 나선형을 이루는 비선형적 시간성을 토대로, 근대이성으로부터 타자로 인식되었던 감성공간의 체험 시간들, 즉 전통, 기억, 역사 등의 과거가 현재를 더욱 두텁게 확장시키며 창조적인 미래 생성을 가능케하는, 새로운 가치평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예술과 패션에 나타나는 시간성은 단선적인 질서에 의한 역사의 연속성을 분절시키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과거로의 도약(Tigersprung)과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의 분열증적 시간성이 있으며, 보다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시각에 의한 생성과 의미의 시간인 영접회귀, 다시 말해서 폴 리콥르(Paul Ricoeur)의 삼중 미메시스(Threefold Mimesis)에 의한 과정 속에서 작가와 수용자 사이에 살아있는 은유를 만들어내는 나선형적 시간성으로 실명할 수 있다. 또한 패션연구에 있어서도 과거에 주목한 레트로 패션 현상에 한정하였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시간성의 분석을 위해서 먼저 패션을 비언어적 텍스트로 상정하고, ‘텍스트’와 ‘시간’이라는 두 영역이 만나는 지점을 해석하기 위해, 시간과 텍스트를 연결하는 폴 리콥르의 삼중 미메시스 개념을 토대로 하였다. 그에 따라서 현대 패션의 시간성이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들이 담지하고 있는 시간성과 미학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폴 리콥르의 삼중 미메시스는 전형상화인 ‘우리가 행위 질서에 대해 갖는 친숙한 선 이해에 대한 지시’, 형상화 단계인 ‘시적 구성의 영역으로의 돌입’, 재형상화단계인 ‘선 이해된 행위 질서의 시적 재형상화를 통한 새로운 통합형상화’로 정의되는 삼단계의 과정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은 삼중의 미메시스의 과정을 토대로 해석 가능한 현대패션의 시간성은 초월성, 이접성, 영원회귀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초월성은 현재에 과거의 이미지를 끌어들이므로 미래를 형성하는 레트로 패션의 시간성이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가 공존하는 삼중적 성격을 띠게 되어 작품이 처하고 있는 현시간성을 초월하여 환등상의 성격을 띠

며 신비롭고 환상적인 감각을 수용하는 시간성이다. 그 예로서 과거이미지를 영감으로 한 로맨틱 판타지 패션을 들 수 있다. 둘째, 이접성은 과거와 현재가 분열증적으로 취해져 낯설은 새로움을 초래하는 시간성이다. 이러한 이접성은 특정시간의 스타일들을 재미삼아 과장되게 모방하거나 풍자하는 카니발레스크 모드와 과거와 현재 이미지의 무작위적인 셀프 스타일링에 의한 스트리트 패션과 브리콜라주 스타일등을 통해서 나타났다. 셋째, 영원회귀의 시간성이다. 레트로 패션은 과거의 스타일들을 재구성하는 행위의 경험을 내재한 디자인 작품이 미래의 또 다른 디자이너에 의해 새로운 변양을 낳기도 하는데, 이로서 패션은 근본적으로 영원회귀적 특성을 지니며 나선형의 시간성을 표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패션의 영원회귀적 시간성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과거를 원천으로 한 디자인 행위와 수용자들의 디자인 읽기, 그리고 능동적 수용으로 새로운 현재를 재구축하는 빈티지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표현된다.

이상과 같이 레트로 패션 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한 현대패션은 끊임없는 탄생과 소멸, 변화와 부활의 과정 속에서 과거의 미메시스를 통해 새로운 현재를 구축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비선형적 시간성인 초월성, 이접성, 영원회귀성을 담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레트로 패션이 단순한 과거시간의 재발견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메타담론 속에서 과거와 미래, 양방향의 현재시간을 재구축함으로써 시간경험을 새롭게 하는 열린 텍스트임을 명백히 하는 결과이다. 그에 따라 패션이 포스트모던시대의 시간성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텍스트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적 시간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열린 시공간 속에서 패션디자이너와 수용자, 그리고 패션디자인과 패션의 수용 행위간의 창조적인 네트워크의 발생을 가능케하여 '새로움'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켰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